

LG CNS, 글로벌 고객 혁신 지원 인니서 ‘클라우드 ERP 전환’ 성과

(기업자원관리)

인도네시아 코린도그룹과 사업계약
SAP RSSP 이니셔티브 합류 이래
동남아시아 지역서 거둔 첫 성과
관리 부담↓, 비즈니스 효율성↑

AX(인공지능 전환) 전문 기업 LG CNS는 인도네시아 코린도그룹의 기업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온프레미스(설치형)에서 클라우드로 바꾸는 사업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독일 SAP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략 서비스 파트너(RSSP) 이니셔티브에 합류한 이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거둔 첫 성과다.

LG CNS는 최근 마곡 본사에서 코린도그룹과 클라우드 ERP 전환을 위한 사업 계약을 맺었다. 체결식에는 LG CNS 엔터프라이즈솔루션사업부장 내한신 전무, 코린도그룹 문진석 부회장과 CIO 김용성 상무 등이 참석했다.

코린도그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본사를 두고 팜오일, 중공업, 금융, 해운, 물류, 풍력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대표 기업이다.

LG CNS는 코린도그룹에서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사용 중인 SAP의 ERP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코린도그룹은 서버·스토리지 등 인프라 관리 부담을 줄이고, 검증된 글로벌 표준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해 비



LG CNS 엔터프라이즈솔루션사업부장 내한신 전무(오른쪽)와 인도네시아 코린도그룹 문진석 부회장이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 CNS

즈니스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LG CNS 관계자는 “자사는 ERP 컨설팅부터 구축, 운영, 고도화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독보적인 사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특히 에이전틱 AI 등 최신의 AI 기술을 ERP 시스템에 적용하는 ‘AX on ERP’ 전략을 통해 고객이 AI를 기반으로 업무를 자동화·효율화하고, 재무·인사·구매 등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빠르게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ERP분야 선도 기업인 SAP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LG CNS는 지난 2월 RSSP 이니셔티브에 합류한 데 이어, 5월에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SAP 사파이어 2025’에 참가해

AI 기반의 ERP 테스트팅 신기술 ‘퍼펙트 원 ERP 에디션’을 선보여 높은 관심을 끌었다.

LG CNS 엔터프라이즈솔루션사업부장 내한신 전무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린도그룹의 비즈니스 혁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다양한 글로벌 고객의 클라우드 ERP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린도그룹 문진석 부회장은 “LG CNS는 풍부한 글로벌 ERP 구축 경험과 높은 기술 전문성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LG CNS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KT 시니어 고객 맞춤형 가전구독 서비스 선포

KT는 시니어 고객을 위한 맞춤형 가전구독 서비스 ‘LG 쉬운(Easy) TV’ 시니어 패키지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출시는 KT가 추진하는 가전구독 라인업 확장 일환이다.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고 품질 보장과 사후 케어를 결합한 구독형 서비스를 강화했다.

이 서비스는 전용 기능과 자주 쓰는 앱을 큰 글씨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간편 모드 홈 화면과 전용 리모컨인 이지 리모컨을 탑재했다. 이를 통해 시니어 고객이 복잡한 조작 없이 손쉽게 TV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운동과 복약 등 생활 알리미 기능, 사진 촬영과 출력 가능한 사진관 기능,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LG 버디, 원격제어 및 도움 요청이 가능한 헬프 버튼 등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과 가족 간 소통 강화를 위한 기능도 제공한다. KT는 LG Easy TV 고객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대해상과 제휴해 3년간 무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은 시니어 고객의 생활 환경에 맞춰 구성된 5대 주요 보장항목으로 ▲응급실 내원시 긴급 후송비 등 응급비용 보장(연 1회 최대 50만원) ▲레저활동 중 상해사고 보장(최대 5000만원) ▲TV 방문수리 서비스(연 1회 100만원 한도) 등으로 구성된다. /김서현 기자 seoh@

“韓, 亞 최대 AI 허브 만들 것”

정재현 신임 SKT CEO
‘SK AI 서밋 2025’ 기조발표
울산 AI DC, 대규모 확장 검토

정재현 신임 SK텔레콤 CEO가 ‘SK AI 서밋 2025’를 통해 공식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기조연설은 그의 취임 후 첫 공식 업무였다.

정재현 CEO는 이 자리에서 “한국을 아시아 최대 인공지능(AI) 허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AI 데이터 센터(AI DC) 설계부터 구축, 운영까지 총괄하는 ‘AI DC 종합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정재현 CEO는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5’에서 기조발표를 맡았다.

이날 정 CEO는 우선 국내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 전국 거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마존웹서비스(AWS)와 7조 원을 투자해 짓는 울산 AI DC는 1GW 이상으로 대규모 확장을 검토한다. 또한, 오픈AI와는 서남권 AI DC 설립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가산 GPU 클러스터), 경남(울산), 서남권을 잇는 전국 AI 인프라를 완성할 계획이다.

SKT의 AI DC 사업은 해외로도 향한다. 정 CEO는 “SK그룹 관계사들과 함께 동남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



정재현 SK텔레콤 CEO가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SUMMIT 2025’에서 AI 인프라 전략의 Next를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이라며 베트남 사업을 예로 들었다. SK 이노베이션과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LNG 발전을 통한 안정적 전력 확보와 냉열 에너지를 냉각에 활용하는 에너지 특화 솔루션을 포함한다. 향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AI 인프라의 또 다른 축은 ‘제조 AI 클라우드’이다. SKT는 엔비디아로부터 RTX PRO 6000 GPU 약 2000장을 도입, SK하이닉스 등 그룹 제조사의 AI 전환(AX)을 지원할 제조 AI 전용 클라우드를 구축한다. /김서현 기자

네이버, AI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솔루션

‘애드부스트 스크린’ 선포

네이버가 광고 경험이 부족한 중소형 사업자도 디지털 옥외광고를 손쉽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신규 광고 솔루션을 선보인다.

네이버는 AI 기술력이 접목된 신규 디지털 옥외광고(DOOH) 솔루션 ‘애드부스트 스크린’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애드부스트 스크린은 영화관, 전광판, 대중교통 등 다양한 오프라인 공간에 배치된 디지털 매체에 맞춤형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네이버의 신규 광고 솔루션이다.

애드부스트 스크린은 네이버 광고 시스템을 통해 광고 소재 등록 및 심의부터 데이터 확인 등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옥외광고 경험이 없는 광고주라도 손쉽게 디지털 옥외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오토클립 AI’ 기술이 적용돼 각기 다른 규격을 지닌 매체에 맞춰 영상 광고 소재의 화면 비율

이나 사이즈를 자동 최적화해준다. 예컨대, 일반 가로형 영상 소재로 세로형이나 특수 가로형 매체에 광고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 AI가 자동으로 원본 영상을 수정해 규격에 알맞게 변환해주는 식이다.

노출 지면의 다양성도 애드부스트 스크린의 강점이다. 애드부스트 스크린은 ▲영화관 ▲도심지 대형 LED 전광판 ▲택시 LED 스크린 ▲음식점 주문·결제 기기 등 광고 주목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디지털 매체를 확보해 광고주가 옥외광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네이버는 오피스·쇼핑·교통 등 마케팅 목적에 맞게 세분화된 타겟 설정이 가능하도록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연동 대상 매체도 점진적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자신의 영업장 주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연내 별도의 애드부스트 스크린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T, 도심항공교통 5G 항공망 안정성 인증

K-UAM 2단계 실증 성료

KT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국내 최초로 도심 환경에서 진행된 UAM 통합 운용 검증으로, KT는 통합 교통 관리 체계와 도심항공교통 운영의 핵심 인프라인 5G 항공망의 안정성을 입증했다.

KT는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등으로 구성된 K-UAM 원팀의 일원으로, 인천 계양에서 청라까지 이어지는 아라뱃길 15km 구간에서 실증을 수행했다. 자체 개발한 UAM교통관리시스템(UATM)을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립한 표준 운영절차(SOP), 5G 항공망, 정보공유시스템 등을 포함한 통합 관리 체계를 실제 도심 환경에서 집중 검증했다.

실증 과정에서는 정상 비행뿐 아니라 통신 두절, GPS 불안정, 돌발 비행체 출현 등 다양한 비정상 상황을 재현했다. KT는 교통관리시스템이 이러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분석해 관리자가 즉각 대응할 수 있음을 확인, 복잡한 도심에서도 안정적인 UAM 운항 관리가 가능함을 입증했다.

KT는 800MHz 대역의 전용 5G 항공망을 기반으로 RTK-GNSS, KASS, ADS-B, MLAT 등 감시 기술을 융합해 항적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이를 통해 통신 전송 성공률이 100%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으며, 조종사와 관리자의 의사소통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5G 항공망을 활용한 비행 데이터 실시간 처리로 기존 4단계에 이르던 비행허가 절차를 1단계로 단축시켰다. 이는 다수의 UAM이 동시에 운항하는 환경에서도 효율적 운항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김서현 기자

크래프톤, 박재철 최고안전책임자 선임

선진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크래프톤은 박재철 본부장을 최고안전책임자(CSMO·사진)로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선진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성수 클러스터 이전 및 e스포츠 등 주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박재철 CSMO는 삼성 계열사에서 약 20년간 안전환경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후 한국수력원자력과 미래셋자산운용에서 산업안전과 환경경영 전담을 총괄한 전문가다. 그는 크래프톤의 전사 안전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성수 클러스터 이전과 e스포츠 등 주요 사업 전반에서 사전예방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성수 클러스터 이전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구성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크래프톤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에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위험이 식별될 경우 즉시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e스포츠 등 대형 오프라인 행사에는 사전 위험평가부터 현장 점검, 사후 평가까지 이어지는 표준화된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회사는 이를 통해 사업 단계별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수준의 안전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빛나 기자 vitna@